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南 權 熙*

Ⅰ. 머리말

이 연구는 필자에 의하여 1993년 7월에 처음 소개된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에 대한 形態書誌學的인 分析과 더불어 本文의 좌우에 筆寫로 添記된 口訣에 대하여 口訣字와 그 사용의 예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시기의 口訣資料인 ≪舊譯仁王經≫, ≪瑜伽師地論≫과 최근 조금씩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楞嚴經≫ 등의 麗末鮮初 口訣資料에 의하여 이 분야 연구는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大方廣佛華嚴經疏≫와 ≪金光明經≫의 高麗 釋讀口訣資料를 1994년 8월과 9월 두 차례의 본 연구회 발표를 통하여 자료를 소개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筆者의 관심은 그 동안 高麗時代의 典籍을 조사하면서 간과하였던 많은 자료들이 口訣研究에 도움이 되고 또 書誌學의 영역에서도 麗末鮮初의 版本을 대하면서 같은 版本의 先後에 대한 문제라든가 無刊記本에 있어서 刊年의 추정에 애로를 느껴 왔던 부분을 비록 제한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였다.

그 가운데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개되어야 할 자료로 판단되어 내용적인 究明은 차후로 하고 우선 資料의 공개를 서두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資料의 발표가 이미 年前에 있었을 뿐만

* 慶北大

아니라 이미 연구가 진전되어 그 결과물이 수편 나온 실정이지만 정작 資料의 基本 理解에 속하는 書誌的인 연구는 몇가지 사정으로 지체되게 되었다.

한편 이 資料에 대한 몇몇 연구자들의 선구적인 업적으로는 이승재(1993)[1]에 의하여 전체의 口訣字와 기능이 개괄되었으며, 백두현(1993)[2]은 'ᄎᆞ'와 'ᄉᆞ'에 대한 독음과 기능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 발표회를 통하여 남풍현(1994.7)[3]에 의하여 字形과 讀法 등이 다루어지고 이장희(1994.8)[4]에 의하여 'ㄲ'자 등이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의 대단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筆者의 口訣 分野 硏究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할 字形, 語彙, 解釋 등 여러 문제가 전문연구자들의 오랜 연구 시간이 필수적이나 우선 筆者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書誌學的 검토와 기본적인 字形 比較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은 물론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더 깊은 연구는 이 분야 연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문제의 제기 정도로 그쳤다.

Ⅱ. 形態書誌學的 分析

1. 物理的 形態

이 자료는 折帖本 또는 折本이라 불리는 形態로 이러한 冊 製本의 樣式은 주로 高麗時代부터 朝鮮初期에 이르기까지의 佛敎書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이며 그 크기는 가로 12.5×세로 21.9cm 정도이다.

外形 중 表紙는 앞뒤가 紺色으로 되어 있고 앞은 金泥와 銀泥로써 唐草寶相華文을 그리고 가운데에는 題簽形式으로 된 二重의 테 속에 鶴立蛇橫

1) 이승재,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3(1993), pp.325-379.
2) 백두현,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ᄎᆞ와 ᄉᆞ; 그 讀音과 문법기능," 어문논총 27호(1993), pp.125-153.
3) 남풍현, "新譯華嚴經 卷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구결연구회 월례강독회(1994.7)
4) 이장희,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ㄲ에 대하여," 구결연구회 공동연구회(1994.8)

의 표시를 하고 제목으로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를 筆寫하였다. 또 그 아래 蓮花로 둘러싼 둥근 圓 속에 '周'라는 三本 華嚴經 중의 周本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이와 같은 구도의 표지를 가진 寫經은 현존하는 13, 14세기의 자료에서 간혹 보이고 있으며 비록 차이는 있으나 高麗時代 전반에 걸쳐 나타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保存의 狀態로 보아 앞표지의 右端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고 뒷표지는 광택이 없는 紺紙로 아래 부분이 헤진 곳이 있으나 앞표지의 紙質이나 金銀泥의 變色, 마모 상태 등과는 전혀 다르므로 이는 뒷장을 改裝하여 새롭게 붙인 것이라 여겨진다.

本文이 수록된 부분은 木板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전체는 20張의 연결과 그 各張은 4面으로 접혀져 있고 各面은 6行으로 되어 있다. 그 版式을 살펴보면,

上下單邊, 匡高 23.4cm, 無界, 24行 17字

1冊(20張), 本文 472행(제목포함), 音義 11行 合 487行

으로 되어 있으며 종이의 연결부분에 '周十四 / [張次] / 刻手名[一部]' 의 표시가 간혹 보인다. 張次의 표시에 있어서는 여섯번째 장을 '六卜'으로 쓰는 등 張이 '幅'이나 '卜'으로 쓰여진 예는 高麗 初雕大藏經(1011-1087년)과 中期의 佛經 일부에서 간혹 볼 수가 있는 정도이다. 또 종이의 紙質은 매끈한 광택을 느낄 수 있는 팽팽한 高麗의 楮紙로 종이를 뜰 때의 발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印刷의 상태로 보아서도 印刷面에 걸쳐 마모가 그다지 보이지 않고 각 획이 정교하게 刻하여진 것으로 판단하면 板刻된 以後의 멀지 않은 시기에 印出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 體制面의 分析

이 책의 시작은 卷首題에 해당하는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에 이어 著者事項으로 '于闐國三藏 實叉難陀奉 制譯'이라고 표시된 뒤에 우측

끝단에 大藏經일 경우 표시되는 函次順의 千字文 漢字가 없는 것으로 보아 大藏經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로 보자면 初雕大藏經은 ≪大方廣佛華嚴經≫이 1行 14字本이며 再雕大藏經은 비록 이 版本과 같은 1行 17字本이나 周本은 書名 아래 函次順인 '垂, 拱, 平, 章, 愛, 育, 黎, 首'로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서 卷14는 '拱'의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이 版本은 初雕나 再雕와 같은 大藏經의 系列은 아닌 것이다.

飜譯者인 實叉難陀는 652년에서 710년까지 생존하였으며 이 華嚴經은 唐의 則天武后의 695년부터 시작하여 699년에 이르러 번역을 마친 것으로 佛陀跋陀羅가 東晋時代 418년에서 420년까지 60卷으로 飜譯한 것과 비교하여 60卷本은 舊譯華嚴經, 80卷本을 新譯華嚴經이라고도 부른다. 그 밖에 般若三藏에 의하여 唐의 795년에서 798년에 이루어진 40卷本 華嚴經도 있다.

이러한 세 종류의 華嚴經을 내용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시기	번역자	별칭	분량	내용구분
418-420	佛陀跋陀羅	舊譯本 晋本	60卷	7處 8會 34品 3萬8千偈頌
695-699	實叉難陀	新譯本 周本	80卷	7處 9會 39品 4萬5千偈頌
795-798	般若三藏	貞元本	40卷	入法界品(제8회)

이 중 내용 구분에서 處는 經을 설한 장소를, 會는 經을 설하는 모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貞元本은 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華嚴經이라고 불릴 땐 제외되고 있다.

본디 中國에 있어서 華嚴經의 번역은 佛敎가 전해진 직후부터 번역되기 시작하여 A.D.70년경 竺法蘭의 <十住斷結經>, 後漢 桓帝(A.D.147-167) 支婁迦讖이 明號品의 별행인 <兜沙經;佛說兜沙經>, 그리고 약 70년 뒤 A.D.223-253년간에 吳의 支謙에 의하여 淨行品의 별행인 <菩薩本業經> 등 華嚴經의 별행으로 된 各品들이 번역[5]되었다. 곧 이어 淨行品은 <諸菩

5) 蔡澤洙, "義湘의 華嚴思想," 佛敎史學會 編, 韓國華嚴思想史硏究(서울 : 民族社, 1988), p.252.

薩求佛本業經>[6]이란 이름으로 西晉의 攝道眞에 의하여 다시 번역되었다.

즉 3세기까지는 경의 일부분이 번역되었고 본격적인 번역은 東晉의 安帝(397-418) 때 廬山의 慧遠(334-416)이 그의 제자 法淨, 法領 등을 보내어 西域의 于闐國에서 화엄경 3萬6千偈의 梵本을 구하여 覺名과 함께 408년에 돌아옴에 佛陀跋陀羅(覺賢三藏, 359-429)가 이 梵本에 의하여 東晉 義熙14年(418)부터 3년에 걸쳐서 楊州 謝司空寺에서 번역한 50卷本이 있으며 이를 舊譯華嚴經[7]이라 하며 그 후 唐代 永隆元年(680)에 中天竺의 地婆訶羅(日照三藏)과 賢首가 교정을 하고 入法界品을 보충하여 번역한 것이 현재의 晉本 60華嚴으로 전하는 것이다.

80卷本은 則天武后의 청으로 梵本을 證聖元年(695) 三月부터 遍空寺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武后가 직접 번역장을 찾아와 品名을 쓰기도 하는 관심을 끌며 聖曆1年(699) 10月에 마쳤다. 60卷本과 비교하여 글과 문장이 유창하며 뜻과 이치가 분명하여 더 많이 읽히게 되었다[8]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入法界品 하나로 구성된 40卷本은 唐 德宗 貞元11年(795) 11月 인도에서 梵本 寫經을 가져와 다음해 6월 長安의 崇福寺에서 般若三藏이 번역을 하고 澄觀, 圓照 등이 詳定한 것으로 貞元14年(798) 2月에 완성되었다.[9]

전체를 내용으로 구분하여 60卷本에서는 제1회 寂滅道場會, 제2회 普光法堂會, 제3회 忉利天會, 제4회 夜摩天宮會, 제5회 兜率天宮會, 제6회 他化自在天宮會, 제7회 普光堂法會, 제8회 逝多林會, 重閣講堂會로 나누어지고 80卷本에서는 普光法堂會가 제2, 7, 8회에 세 번 들어가고 제9회에 給孤獨園會가 들어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周本의 第14卷은 제2회 普光法堂會에 해당하고 품으로서는 11번째의 淨行品과 賢首品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몇 종의 華嚴經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대략 5세기 때의 高句

---

6) 佛光大藏經編修委員會 編, 佛光大辭典, 1(高雄 : 佛光出版社, 1989), p.759.
7) 金知見, "新羅 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佛敎史學會 編, 韓國華嚴思想史硏究(서울 : 民族社, 1988), p.77.
8) 佛光大辭典, 1, p.762.
9) 佛光大辭典, 1, p.763.

麗 僧인 僧郎을 시작으로 하여 7세기 초에 활동한 新羅의 慈藏으로 이어져 緣起祖師, 元曉(617-686), 義湘(625-702)을 비롯한 많은 승려들이 연구를 하고 저술을 남겼다. 특히 현존하는 755년에 寫成된 ≪大方廣佛花嚴經≫과 元曉의 ≪華嚴經疏≫, 華嚴石經에 의하여 60卷과 80卷本이 모두 이른 시기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어 浮石寺, 華嚴寺, 海印寺와 같은 華嚴宗 사찰들이 계속 조성되어 新羅에서 高麗에 이르기까지 華嚴學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高麗에 있어서는 三本 華嚴經의 간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義天에 이르러는 80卷本에 대한 澄觀의 疏와 더불어 宋代의 淨源法師가 錄疏注經한 120卷 등의 華嚴經疏가 전래되어 華嚴學 연구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 판본 역시 義天이 활동하던 그 무렵 즉 高麗 肅宗 때의 板刻에서 印出된 것이며 口訣을 붙인 점으로 보아 많이 독송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內容面의 分析

周本 第14卷의 내용은 제2회 普光法堂會의 如來名號品, 四聖諦品, 光明閣品, 菩薩問明品, 淨行品, 賢首品으로 구성된 것 중의 마지막 淨行品과 賢首品에 해당한다.

본디 제2회의 모임은 석가모니가 普光法堂의 獅子座로 자리를 옮겨 앉고 이어 文殊菩薩이 먼저 苦集滅道 四諦의 법을 설한 뒤 10명의 菩薩들이 각각 열가지의 심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十信, 十住, 十行, 十回向, 十地의 다섯 단계 因行을 닦아서 부처의 果報를 이루는 것을 말하였던 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계속되며 차례차례 윗단계로 올라가 지혜를 내게 하는 差別因果의 내용인 것이다.

그 중 본 第14卷의 淨行品이란 淨行 곧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으로 이 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 구성은 文殊菩薩과 智首菩薩의 문답으로 文殊菩薩은 智首菩薩의 물음에 대하여 보살이 착한 마음을 닦고 부처의 德行과 智慧를 얻어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버리고 여러가지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서 141가지 내용을 들고 있다. 즉 바로 앞의 菩薩問明品에서 文殊菩薩이 智首 등 아홉 보살에게 緣起, 敎化, 業, 說法 등 道의 9가지 깊은 이치를 묻고 각 보살이 偈頌으로 답하고 이어 文殊菩薩이 如來의 깊은 경계는 허공과 같아서 일체 중생이 거기 들어가면서도 실제로는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대답하여 믿음의 근거가 되는 知解를 내게 하는데 그에 관련한 바른 행, 즉 淨行에 대한 내용이다. 즉 菩薩問明品은 열가지 信力의 解를 낸 것이 되고 淨行品은 열가지 信力의 行을 실제 실천하는 부분인 것이다.

또 淨行品에 이어 연결되는 賢首品은 行을 닦음에 德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知解와 修行의 원만으로 普賢의 수승한 功德을, 文殊菩薩의 요청으로 賢首菩薩이 356 偈頌으로 찬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賢首란 菩薩의 이름이며 이 품에서는 賢首菩薩이 文殊菩薩에게 부처의 德行과 威力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佛道를 닦아야 한다는 신앙 생활의 체험을 소개하고 그와 같이 일체 잡념을 씻어버리고 부처를 받드는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의 명상이나 菩薩의 명상에 잠겨 온 세상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부처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賢首菩薩은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신비한 위력을 주는 佛道를 믿기도 어렵고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오직 부처의 마음을 지니거나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佛道를 닦을 수 있으며 그 밖에 더 큰 힘은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文殊菩薩은 부처님들을 잘 간택하여 묘한 지혜를 이룸으로써 문답의 주가 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141가지 대원으로 染業二障을 밝혀 10信, 10住, 10行, 10回向, 10地의 普賢無盡行을 닦아 佛道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먼저 淨行品의 내용을 본문의 단락(張:行)으로 구분[10]하면 다음과 같다.

(1) 1:4 - 2:9 ; 智首의 물음
(2) 2:10 - 2:18 ; 文殊의 답
: 智首의 물음을 찬탄함

10) 安德菴, 華嚴經講義, 上(가평 : 佛敎通信大學, 1992), pp.687-703.

(3) 2:19 - 3:5 ; 在家의 11願

: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집에 있어도 성품이 空하여져 핍박이 없어진다.

(4) 3:6 - 3:20 ; 出家의 15願

: 앞은 俗家를 버림이고 뒤는 出家方便으로 落髮과 染衣, 受戒를 말한다.

(5) 3:21 - 4:3 ; 堂下의 7願

: 禪房에 나아가 서원을 발하는 것으로 처음 4게는 方便을 다음 2게는 止觀을, 마지막은 修行을 말한다.

(6) 4:4 - 4:9 ; 足下의 6願[11]

: 당을 내려와 바른 걸음을 걸으면서 세운 원을 말한다.

(7) 4:10 - 4:16 ; 楊枝의 7願

: 楊枝는 칫솔과 같아서 인도에서는 아침과 낮으로 씹어서 더러움을 제거한다. 세수할 때의 원을 포함하고 있다.

(8) 4:17 - 6:23 ; 執杖乞食時의 55願

: 도로에 다닐 때 12원, 경계에 따라 19원, 만나는 사람을 따라 세운 24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 6:24 - 7:21 ; 城廓下의 22願

: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인 성곽에서의 원이며 끝에 공양 후의 설법하는 것은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10) 7:22 - 8:2 ; 舍出時의 5願

: 집안에서 나갈 때의 원이다.

(11) 8:3 - 8:12 ; 諷誦時의 10願

: 경전을 읽을 때와 부처님을 찬탄할 때의 원을 말한다.

(12) 8:13 - 8:15 ; 洗足時의 3願

: 신체를 보전할 때의 원을 이른다.

(13) 8:16 - 8:19 ; 發願의 功德

한편 賢首品은 이 책의 第8張의 19행부터 <大方廣佛華嚴經賢首品十二

11) 華嚴經講義, p.691.에서는 7願이라 하였으나 이는 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之一>의 제목으로부터 시작되어 14卷의 마지막 20張 15行까지 수록되어 있으나 내용구분으로 본다면 15卷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며 여기서는 佛果行願의 공덕을 널리 밝힘으로써 복과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 卷14-15에 실린 전체의 양에서 14卷의 내용을 본문의 단락(張:行)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8:20 - 8:24 ; 文殊의 물음

(2) 9:2 - 9:9 ; 發心修行章(賢首의 답)

:여기서는 初發心의 所因을 밝힌 곳으로 發心功德이 넓고 커서 가히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을 밝혔다.

(3) 9:10 - 9:15 ; 初發心의 所因

(4) 9:16 - 10:9 ; 三寶信仰의 이익

: 不信, 교만으로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 부처의 거룩한 지혜를 얻고 부처를 보게 되는 과정으로 믿으면 온갖 것이 모두 구족해진다는 18행송이다.

(5) 10:10 - 11:2 ; 所具의 行

: 내용의 반은 믿음 가운데 갖춘 행위를 밝힌 것이며 앞의 5송은 三寶를 믿어 諸行을 이룬 것이며 뒤 3송은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諸行을 이룸을 나타내고 있다.

(6) 11:3 - 14:8 ; 所具의 諸位

: 부지런히 정진수행하여 道果를 얻는 것을 밝힌 부분으로 10住位, 10行位, 10回向位, 10地位, 10自在를 차례로 나타낸다.

(7) 14:9 - 15:2 ; 無方大用의 海印三昧

: 덕을 찬탄하고 모든 三昧가 처음은 體를 의지하여 用이 일어나고 중간에는 妙用自在를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體와 用이 같아짐을 나타낸다.

(8) 15:3 - 15:15 ; 華嚴三昧와 因陀羅網三昧

: '華'는 진리의 꽃이며 '嚴'은 行果가 이치에 맞아 性相을 잊고 能所가 俱絶한 가운데 천지가 일시에 炳顯한 것을 나타내며 티끌을 통해 三昧力과 신통력을 보이고 있다.

(9) 15:16 - 17:3 ; 手出廣供三昧門

: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들어 나타내고, 옛적에 손으로 공양구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 모든 것을 베풀어준 것을 상징하는 삼매를 밝히고 있다.

(10) 17:4 - 19:5 ; 現諸法門三昧와 四攝攝生三昧

: 수행의 4종 住處와 수용과 자재를 구하는 사람에 대한 보시, 10종의 利行을 설명하였다.

(11) 19:6 - 20:15 ; 不動世間三昧

: 몸을 세간에 맞추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보살이 果를 얻고 자비를 행하며 중생을 교화하므로 興供을 마음대로 한 것을 말한다.

Ⅲ. 版本의 時代 分析

이 연구에서는 釋讀口訣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 위하여 그 선행 작업으로 책이 간행된 시기를 形態書誌學的인 방법으로 먼저 추정하고 이 版本의 시대를 가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高麗時代 刊行의 華嚴經을 實査하거나 書誌調査를 하여 그 系統을 살펴보았다. 또 周本과 더불어 版本의 상태나 물리적 외형이 비슷한 것으로 思料되는 晋本, 貞元本을 비교의 관점에서 함께 조사하였다.

<圖表-1 周本>

卷別	外形	版心部分	張次	刊年推定	文化財表示	所藏處	備考
周卷1[12]	卷子	周一	三	肅宗年間		個 人	國寶202 系列
周卷3[13]	卷子			肅宗年間		個 人	書名중 華⇒花
周卷6[14]	卷子	周經第六	二幅	12c頃	國寶203	趙炳舜	未確認刻手名
6[15]	卷子	周六	九	肅宗年間	寶物690	趙炳舜	國寶202 系列

12)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 汎友社, 1990), p.89.
13) 筆者 實査, 函次表示 없음.
14) 千惠鳳, 國寶 12; 書藝·典籍 (서울 : 藝耕産業社, 1985), p.122.

周卷17[16]	卷子	周十七	十七	肅宗年間	寶物688	趙炳舜	國寶202 系列
22[17]	折帖	周二十二	二	12-13c	寶物959-18	祇林寺	卷末音義
26[18]	折帖	周經第二十六	三幅	肅宗年間	寶物959-13	祇林寺	國寶204幅, 子春
26[19]	折帖	周二十六	十六	肅宗年間		個 人	海印寺 塾, 冲, 玄
36[20]	卷子	周三十六	二	12-13c	國寶204	趙炳舜	202,203보다 큰 字
38[21]	折帖	周經三十八	三幅	肅宗年間	寶物1017	金敏榮	國寶204 系列
48[22]	折帖	周四十八	二丈	12-13c	寶物959-14	祇林寺	
52[23]	卷子	周五十二	四	肅宗年間	寶物688	趙炳舜	國寶202 系列
55[24]	折帖	周五十五	二	12-13c	寶物959-19	祇林寺	
65[25]	折帖					高麗大	
66[26]	卷子			肅宗年間	寶物687	趙炳舜	國寶202 系列
74[27]	折帖	周七十四	二	12-13c	寶物959-20	祇林寺	
79[28]	折帖	周七十九	二丈	12-13c	寶物959-19	祇林寺	本文 行中間 記錄

<圖表-2 晋本>

卷別	外形	版心部分	張次	刊年推定	文化財表示	所藏處	備考
晋卷4[29]	卷子			肅宗年間	寶物685	趙炳舜	國寶202 系列

15)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文化財大觀 8(서울 : 大學堂, 1986), pp.132-133.
16) 文化財大觀 8, pp.132-133.
1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서울 : 同局, 1989), p.104.
18)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4.
19) 筆者 實査, 每張 刻手名이 보임. 紺紙表紙, 題簽印刷.
20) 國寶 12; 書藝·典籍, p.123.
21)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9指定篇(서울 : 同局, 1990), p.243-244.
22)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0.
23) 文化財大觀 8, p.132.
24)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5.
25)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貴重圖書目錄(서울 : 同館, 1980), p.7.
26) 文化財大觀 8, p.131.
27)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6.
28)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1.

晋卷7[30]	折帖 晋經第七	第二幅	12-13c		個 人	版心下 刻手名
10[31]	折帖 晋十	二	12-13c	寶物959-16	祇林寺	海印寺板 系列
15[32]	折帖 晋十五		12-13c	寶物1017	金敏榮	
28[33]	卷子 晋二十八	六	肅宗年間	寶物685	趙炳舜	國寶202 系列
28[34]	折帖 晋二十八	二十四	12-13c	寶物793	上院寺	
29[35]	卷子 晋經第二十九第三張		肅宗年間		個 人	書名중 華⇒花
33[36]	卷子		肅宗年間		個 人	國寶202 系列
						智異山 拯倫寺
37[37]	卷子		肅宗4年	國寶202	李元基	陜州 李必先
53[38]	折帖 晋五十三	二	12-13c	寶物959-17	祇林寺	海印寺板 系列

<圖表-3 貞元本>

卷別	外形	版心部分	張次	刊年推定	文化財表示	所藏處	備考
卷2[39]	折帖	貞元二	二	12-13c	寶物1017	金敏榮	海印寺板 系列
7[40]	卷子			肅宗年間	寶物688	趙炳舜	國寶202 같은 佛腹
14[41]	卷子	貞元本經第十四卷 第二張		肅宗年間		個 人	書名중 華⇒花
20[42]	折帖			13-14c	寶物1083	宋成文	海印寺板 系列

29) 文化財大觀 8, p.130.
30) 筆者 實査, 비단표지, 湯函.
31)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2.
32)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9指定篇, pp.241-242.
33) 文化財大觀 8, p.130.
3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4-'85指定篇(서울:同局, 1989), p.104.
35) 筆者實査, 卷首의 上端部 일부 파손.
36)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p.87.
37) 國寶 12; 書藝・典籍, p.120.
38)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p.103.
39)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9指定篇, p.238.
40) 文化財大觀 8, p.133.
41) 筆者實査, 第1張중 반 파손.
42)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91指定篇(서울: 同局, 1992),

31[43] 折帖 貞元經第三十一 14c 個 人 海印寺板
實字函 第三幅
38[44] 折帖 貞元本三十八 十六 12-13c 寶物1017 金敏榮 海印寺板 系列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본과 유사한 版式을 지닌 것으로는 國寶203號로 지정된 趙炳舜의 所藏인 周本 卷六이며 특히 이 책은 제목 아래 '海東沙門守其藏本'의 所藏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再雕大藏經을 만들 때 校勘作業을 한 守其의 것으로 再雕本의 底本일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되고 있다. 또 이 책에는 全羅道 潭陽의 田洵美가 生母의 往生極樂을 기원하기 위하여 印成한 기록이 권말에 있고 일반적으로 12世紀에 印出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書誌的인 체제면에서 유사한 부분을 비교할 때 첫째장과 둘째장의 연결부분에 '周經第六 二幅 [刻手名]'이 있고 上邊 위에 筆寫로 전체의 연결매수를 '二十卜'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도 역시 같은 계열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 밖에 海印寺의 寺刊本 중 周本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으며 그 板刻의 시기가 肅宗3年(1098)이며 역시 21매의 연결과 卷末에 音義가 갖추어져 있는 점에서 이 板과 거의 같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이러한 版式과 物理的 면의 紙質, 表紙, 書體, 印刷狀態 등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高麗本임을 알 수가 있고 그 上限은 肅宗부터 13世紀末까지이며 國內 傳本 系列의 17字本이다.

그리고 後刷本이나 覆刻本의 可能性에 있어서도 그 印出된 상태와 刻法으로 보아 初印本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특히 高麗本의 감정에 있어서 14세기의 紙質은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것에 비하여 이 책의 紙質은 대단히 희고 얇으며 광택이 나는 上品의 楮紙인 점을 감안하고 여러 板本 등을 비교할 때 거의 12-13세기의 刊本으로 추정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좁혀볼 수가 있다.

---

pp.125-126.
43) 筆者 實査.
44)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89指定篇, p.240.

Ⅳ. 再雕大藏經과의 比較

海印寺에 所藏된 再雕大藏經과 비교하면 서로 비슷함을 느끼긴 하지만 第3卜의 15行 第9字 '深'이 再雕本은 분명한 반면 이 책에는 글씨가 뭉쳐져 있고 앞의 三水邊도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으며, 第16의 22行 第10字인 '絢'이 再雕本에서는 '女+旬'으로 되어 있고, 第18의 9行 第11字인 '宜'가 이 책에서는 갓머리의 첫번째 획이 빠진 민갓머리로 되어 있다.

또 第二十의 2, 3행의 '臥'자가 이 책에서는 뒷획이 '卜'로 세워진 형태로 되어 있는 등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 책에는 刻手名이 가끔 보이고 있으나 張의 연결상 가려져 일부만이 확인되는 바가 다음과 같아서,

面數	區分	卷次	張次	單位	
2장째	周	十四	二		[刻手名]
6장째	周	十四	六	卜	
8장째	周	十四	八		立[ ]
13장째	周	十四	十三		口
15장째	周	十四	十五		[ ]
16장째	周	十四	十六		玄
17장째	周	十四	十七		玄
18장째	周	十四	十八		[ ]
19장째	周	十四	十九		惠
20장째	周	十四	二十		[18장과 동일]

등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再雕大藏經에서는 '周經第0 第0幅 函架 刻手名'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또 刻手名은 '之有'[45]라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再雕大藏經과는 분명 계열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校勘上의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 華嚴經은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刊行史에 있어서도 淨行品은 華嚴經

45) 增上寺史料集, 別卷 ; 高麗版大藏經目錄(增上寺, 1981), p.52.

의 초기 번역 때부터 별행인 <菩薩本業經>, <諸菩薩求佛本業經> 등의 이름으로 일부분으로 간행된 적이 많아서 口訣과 관련하여 추정할 때 이 책을 이루는 80卷 한질 전체를 공부하면서 전부 구결을 달았다기보다는 이 淨行品 부분이 특별히 연구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처음 자료를 實査할 때 이 자료와 함께 佛腹藏에서 나온 자료 중 같은 華嚴經 折帖 몇 권과 寫經 및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 등에서는 구결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한편 高麗 肅宗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淨行品이 八萬大藏經이 소장된 海印寺의 寺刊板에 두 판(寶物734-5號)이 남아 그 印本에 의하면 卷首題가 ≪大方廣佛華嚴經淨行品≫, 著者事項이 '于闐國三藏沙門實叉難陀譯'으로 口訣本의 체제와 같으나 口訣本이 한 행에 17字의 國內傳本의 체제를 가진 것에 비하여 이 책은 48행으로 한 행에 작은 16字를 배열한 점이 다르다. 그러나 보관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朝鮮中期에 刷出된 印面에도 첫장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걸쳐 이지러지거나 마모된 부분이 많아서 겨우 확인되는 곳도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간행에 관계되는 내용은,

…禪師在居士時請[]願…傳[][]昭慶寺僧省常至誠刻稱檀造遍照 …

彫板印施約八十[]…刻字大師 釋比…[46]

등에서 볼 수가 있고 간행의 형식이나 書體 등으로 미루어 역시 12-13세기의 板刻으로 여겨진다. 즉 기록과 이러한 판본들이 전존하고 있음을 볼 때 淨行品만을 따로 간행하기도 하고 口訣을 다는 것 역시 華嚴經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V. 口訣의 特徵

1. 全體의 特徵

46) 個人所藏 資料에서 實査;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總覽(城南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9), p.78에서는 道人一眞을 더 판독하고 있다.

이 折帖本의 전체를 통하여 口訣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여 있으며 좌우에 墨書의 細筆로 쓰고 있으나 ≪舊譯仁王經≫과 ≪瑜伽師地論≫과 비교할 때 두 책이 활달하게 쓰여진 것과는 대조를 이루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앞서의 자료와 비교하여 열거하면,

첫째, 口訣字의 사용 범위가 ≪舊譯仁王經≫과 매우 일치한다. 즉 ≪舊譯仁王經≫에서 사용된 53개자와 46개가 일치하고 ≪瑜伽師地論≫과도 역시 46개 정도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각각의 口訣字는 서로 달리 나타난다.

둘째, 釋讀口訣이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부분적으로 逆讀点의 사용도 보이나 ≪舊譯仁王經≫과 같이 정확하게 또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서 추정되는 것은 逆讀点의 표시 없이도 문장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가능성과 ≪舊譯仁王經≫, ≪瑜伽師地論≫과는 달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는 수록 문장의 내용이 주로 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짤막한 詩나 對句의 간략한 표현, 반복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구조 자체가 단순한 것에서 연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口訣이 筆寫되는 전달 과정에서 筆寫者가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으나 오히려 앞의 두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셋째, 口訣을 쓰고 다시 수정한 곳이 몇 군데 보인다.

口訣의 字形 分析 方法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외형적으로 修正한 곳에 의거하여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서 잘못 轉寫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修正處 一覽

番號	張: 行	表記된 內容	修正 內容	誤寫의 原因 分析
1	1 : 12	具足丶ナ今乙	具足丶ノ今乙	자형의 유사
2	1 : 15	不可說慧丶ナ今乙	不可說慧丶ノ今乙	자형의 유사
3	1 : 23	圓滿ㄱ分	圓滿ㄴ分	자형의 유사
4	2 : 10	善哉ㄱ丨	善哉ㄲ	한 자를 두 자로 분리

5	2 : 13	獲ㅅ ᄒᆞㅅ	獲ㅌ ᄒᆞ ㅛ	앞12행의 利樂ㅅ ᄒᆞㅅ에서 잘못 유추
6	2 : 19	菩薩ㄱ	菩薩ㄲ	ㄲ를 두 획 연결로 봄
7	3 : 09	出家ㅅ尸の乙	出家ノ尸の乙	자형의 유사
8	3 : 16	自ノㅋㄱ	自ノㅅㄱ	ノㅅ를 ㅋ, 윗획을 이중처리
9	4 : 03	散滅ノ尸矣十	散滅ノ尸矢十	자형의 유사, '厶+大'로도 보임
10	4 : 23	下ㄲㄹ十	下ㄱㄹ十	ㄱ를 두 획 연결로 봄
11	4 : 24	見ㅅㄱㅣ十ㄱ	見ㅈㄱㅣ十ㄱ	속기체ㅈ의 연결획을 분리로 봄
12	5 : 04	離支ㅌㅎ	離支ㅌ立	錯視, 誤寫
13	5 : 06	見ㅈㄱ十七ㄱ	見ㅈㄱㅣ十ㄱ	錯視, 자형의 유사
14	5 : 08	頂ノㅎ	頂ㅈ十	앞7행의 敬禮ノㅎ에서 동일현상 유추
15	5 : 10	爲ㅈㅌ立	爲ㅈㅌ立	자형의 유사, 誤寫
16	5 : 11	法ㄱ	法ㄲ	ㄲ를 두 획 연결로 봄
17	5 : 11	如支ㅋㅈ	如支ㅅㅈ	자형의 유사, 錯視
18	5 : 21	見ㅏㄹㄱ入乙	見ㅏㅋㄱ入乙	자형의 유사, 錯視
19	6 : 08	佛ㄲ	佛人 또는 佛ㅈ	誤寫
20	6 : 10	佛ㄲ	佛人 또는 佛ㅈ	誤寫
21	6 : 17	諸ㄲ	諸ㄱ	ㄱ를 두 획 연결로 봄
22	6 : 21	爲刀乙ㅅㅈ五	爲刀乙ㅅㅌ立	誤寫
23	6 : 22	能汚	能支	誤寫
24	7 : 08	淸淨ㅅㅈ人	淸淨ㅅㅈ八	錯視, 誤寫
25	8 : 06	如支ㅅㅈ人	如支ㅅㅈ八	錯視, 誤寫
26	8 : 16	菩薩ㄱ	菩薩ㄲ	ㄲ를 두 획 연결로 봄
27	9 : 01	量ㅈㄹㅎ	量ㅈㅋㅎ	錯視, 誤寫
28	9 : 12	求ㅅㅈㅅㅈ七ㅌㄱ	求ㅅㅈㅅㄱㅌㄱ	誤寫
29	9 : 13	利益ㅅ가ㅅ、	利益ㅅ가ㅅ	逆讀点의 추가
30	9 : 15	證ㅅ가ㅅ、	證ㅅ가ㅅ	逆讀点의 추가

31	9 : 21	開ㅣㅎ	開ㅅㅎ	錯視, 誤寫
32	9 : 23	亦爲ㅅㄱ, ㄲ乙ㅅㅎ	亦ㅅㄱ爲ㄲ乙ㅅㅎ	表記位置 誤寫
33	11 : 22	放逸ㅣㅇ尸ㅣ乙	放逸ㅣㅇ今乙	錯視, 誤寫
34	13 ; 23	修行ㅅㅂ尸入乙	修行ㅅㅂ尸入ㄱ	자형의 유사, 誤寫
35	13 : 24	住ㅅㅂ尸入ㄱ	住ㅅㅂ干ㅎ	앞22, 23행에서 聯想
36	14 : 19	念念ㅋ十ㅅㅣ	念念ㅋ十ㅇㅣ	錯視, 誤寫
37	15 : 06	等ㅣㅇㄱ	等ㅣㅅㄱ	錯視, 誤寫
38	15 : 12	成ㅏㄱ矢ㅣ或ㅏㄱ矢ㅣ成ㅏㄱ矢ㅣ或		表記位置 誤寫
39	15 : 17	徧ㅅㅣㅅㅋ	徧ㅇㅣㅅㅋ	錯視, 誤寫
40	15 : 17	供ㅅナㅅㅣ	供ㅅナ今ㅣ	자형의 유사, 誤寫
41	15 : 22	十方ㅋ七	十方ㅋ十	자형의 유사, 誤寫
42	16 : 08	爲ㅑㅁ大ㄱ乙	爲ㅑㅁナㄱ乙	誤寫
43	17 : 04	菩薩ㄱ	菩薩ㅣ	ㅣ를 두획 연결로 봄
44	18 : 05	樂ㅁㅅ今七	樂ㅁナ今七	자형의 유사
45	18 : 16	欲	欲人	誤寫
46	19 : 01	現ㅅㅋ, ㅣナ分度	現ㅅㅋ度ㅣナ分	表記位置 誤寫
47	19 : 12	成七立ㅅ土ㄱㅣ	成立ㅅ土ㄱㅣ	불필요한 자 추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표기된 口訣은 筆寫者가 원문을 읽으면서 바로 기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底本에 의거하여 충실히 베끼려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까닭은 글자의 판독에 있어서 조사 'ㄱ'과 'ㅣ'이 혼란된 점과 기입될 위치의 아래위에 변동이 생기거나 한 글자의 좌우에 아래의 口訣을 올려 쓴 점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필자가 발표[47]한 高麗 釋讀口訣 資料 중의 하나인 ≪金光明經≫에서도 제 위치에 바로 적지 못하여 화살표로 옮기거나 수정한 곳이 몇 군데 보인다.

즉 이러한 오류는 적어도 본인이 직접 문장을 풀이하면서 읽었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며 또 앞줄에 나온 구결형태를 내용이 바뀜에도 불구

47) 筆者, "高麗釋讀口訣資料 ≪金光明經≫卷三의 紹介," 口訣硏究會 月例發表會要旨 (1994.11.3), p.4.

하고 다음 줄에서 그대로 적었다가 수정한 것은 筆寫 내지는 轉寫時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실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넷째, 文章의 성질상 앞에서 언급된 형식과 비슷한 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처음의 문장에만 口訣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있다.

다섯째, 두 자료에서 용례가 없었던 ㅛ, ㅁ, ㅈ, ㅿ, ㆆ 등의 口訣字를 볼 수가 있었다.

2. 使用 口訣字의 형태

이 자료에 사용된 口訣字에 대하여는 이승재, 남풍현 등에 의하여 검토되어 특히 처음 등장한 'ㅿ', 'ㆆ', 'ㅅ' 등의 原字 추정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승재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 쓰여진 口訣字의 전체 범위와 口訣字의 原字推定에 대하여는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56개의 범주에서 한두 자의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音價	原字推定		音價	原字推定
1) ㅿ	거	去	21) ㄹ	ㄹ/ᄅᆞᆯ	乙
2) ㅑ	겨	在	22) ㅠ	ㄹ	驢, 涙
3) ㅁ	고	古	23) ㅛ	라	羅
4) ㅈ	금	爾	24) ㅚ	로	以
5) ㅅ	와/과	果	25) ㅇ	리?	?
6) ㅅ	ㄱ/기	只	26) ㅎ	ㅁ	音
7) ㄱ	으/ㄴ	隱	27) ㅇ	마	亇
8) ㄲ	나	那	28) ㅇ	며	彌
9) ㅏ	누	臥	29) ㅅ	시기/식	令?
10) ㅌ	니	尼	30) ㅊ	ㅅ	叱
11) ㅌ	ᄂᆞ/나	飛	31) ㅓ	사/ᄲᅳ	沙
12) ㅣ	다	多	32) ㅂ	ᄉᆞᆷ	白
13) ㅈ	히/디/다	希	33) ㅓ	아	良

14) 丁	뎌	丁	34) ᄉ/ㅅ	여	亦
15) 刀	도/ᄃᆞ/ᄃᆞᆯ	刀	35) ᄌᆡ	져	齊
16) 斗	두	斗	36) ᄇᆡ	이	是
17) ㅅ/の	ᄃᆞ/ᄃᆞᆯ	入	37) ᄋᆞ	인/의	衣
18) 矢	디	知	38) 之	인/의/예	之?
19) 冬	돌	冬	39) 下	하	下
20) ム	디	矣	40) ノ	오/호	乎

	音價	原字推定		音價	原字推定
41) ㄱ	오/호	乎	51) 矣	디	矣
42) ᄀᆞᆺ	히	兮/屎?	52) ㄷ	지/디	止
43) 十	긔, 힉	中	53) 斤	놀	?
44) ㅁ	시/ᄉᆞ	賜	54) メ	노	奴
45) ㄴ	ᄒᆞ	爲	55) 這	곧/ᄀᆞᆺ	這
46) 子	?	?	56) 印		?
47) 火	브/ᄇᆞ	火			
48) ᄀᆡ	뎌/셔?	彼/徐?			
49) ᄎᆞ	리?	利?			
50) 立	셔	立			

3. 다른 釋讀口訣 資料와의 비교

이 자료에서 사용된 口訣字의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釋讀口訣 資料에 나타난 현상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용례의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보면 전체의 사용 구결자는 대체로 공통적인 것이 약 50자에서 55자 정도이며 책과 시대에 따라서는 10자에서 15자의 서로 다른 형태 내지는 다른 字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의 비교 대상은 書誌學的 관점과 구결의 형태를 미루어 필자가 임의로 작성한 순서이며 인용된 책들의 서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舊譯仁王經 : 木板本, 5張, 先行 硏究들에서 11세기로 추정

2)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 : 木板本, 折帖, 12세기로 추정

3) 大方廣佛華嚴經 卷14 : 木板本, 折帖,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

4) 瑜伽師地論 卷20 : 木板本, 卷子, 13세기 후반

5) 金光明經 卷3 : 木板本, 卷子, 13세기 후반, 瑜伽師地論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쓰여짐. 단, 卷首와 卷末의 2장씩은 앞선 시기의 筆寫로 추정

〈釋讀口訣資料에 나타난 口訣字의 目錄〉

	舊譯	華疏	華嚴	金光	瑜伽	音價	原字推定
1)	厶	厶	厶	厶	厶	거	去
2)	𠂇	𠂇	𠂇	𠂇	𠂇	겨	在
3)	口	口	口	口	口	고	古
4)	尒	尒	尒	尒/尓	尒/尓	금	爾
5)	人	人	人	人	人	와/과	果
6)	八	八	八	八	八	ㄱ/기	只
7)	乛	乛	乛	乛	乛	으/ㄴ	隱
8)	乃	乃	乃	乃	乃	나	那
9)	卜	卜	卜	卜	卜	누	臥
10)	匕	匕	匕	匕	匕	니	尼
11)	匕	匕	匕	匕	匕	ᄂᆞ/나	飛
12)	丨	丨	丨	丨	丨	다	多
13)		攴	攴	攴	攴	히/디/다	希
14)	丁	丁	丁	丁	丁	뎌	丁
15)	刀	刀	刀	刀	刀	도/ᄃᆞ/ᄃᆞᆯ	刀
16)	斗	斗	斗	斗	斗	두	斗
17)	の	入	入/の	入	入	ᄃᆞ/ᄃᆞᆯ	入
18)	矢	矢	矢	矢	矢	디	知
19)	冬	冬	冬	冬	冬	ᄃᆞᆯ	冬
20)	ム	ム	ム	ム	ム	디	矣

21)	乙	乙	乙	乙	乙	르/롤	乙
22)	尸	尸	尸	尸	尸	르	驢, 淚
23)	罒	罒	罒	罒	罒	라	羅
24)	罒	罒	罒	罒	罒	로	以
25)	令	令	令	令	令	리?	?
26)	亠	亠	亠	亠	亠	口	音
27)	𠂉	𠂉	𠂉	𠂉	𠂉	마	𠂉
28)	分	分	分	分	分	며	彌
29)		厶	厶	厶	厶	시기/식	令?
30)	七	七	七	七	七	人	叱
31)	彳	彳	彳	彳	彳	사/쁘	沙
32)	白	白	白	白	白	숣	白
33)	𠂇	𠂇	𠂇	𠂇	𠂇	아	良
34)	丶	丶	丶/丄	丄	丄	여	亦
35)	𠂆	𠂆	𠂆	𠂆	𠂆	져	齊
36)	丨	丨	丨	丨	丨	이	是
37)	𠂉	𠂉	𠂉	𠂉	𠂉	의/의	衣
38)	之	之	之	之	之	의/의/예	之?
39)	下	下	下	下	下	하	下
40)	丿	丿	丿	丿	丿	오/호	乎
41)	𠂊	𠂊	𠂊		𠂊	오/호	乎
42)	𠂇	𠂇	𠂇	𠂇	𠂇	히	兮/屎?
43)	十	十	十	十	十	긔, 히	中
44)	乂	乂	乂	乂		노	奴
45)	丷	丷	丷	丷	丷	ᄒᆞ	爲
46)	子	子	子		子	?	?
47)	火	火	火	火	火	브/ᄇᆞ	火
48)	彳	彳	彳	彳	彳	더/셔?	彼/徐?
49)	𠂤		𠂤	𠂤	𠂤	리?	利?
50)		立	立			셔	立
51)	𠂉	𠃌	𠃌	𠂉	𠂉	ᄉᆞ/시	賜/示

52)		禾			리	利
53)		又			우리?	
54)		与			여	與
55)		甲			?	
56)		勿			믈/물	勿
57)		弋			이/익/이기?	弋
58)		三			삼	三
59)	岁				뎨	第
60)	這		這		곧/갖	這
61)	毛				모	毛
62)	ろ				오	五
63)			矣		딕	矣
64)		邑		邑	비/읍	邑
65)			斤	斤	놀	?
66)		止	止		지/디	止?
67)				立	(으)ㅁ	音
68)				成	일	成
69)				艮 艮	그/ㄱ	艮
70)				一 一	?	?
71)	于			于	우리	?
72)	巳				비?	?

Ⅵ.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1993년에 발견된 釋讀口訣 자료 ≪大方廣佛華嚴經≫ 卷14를 書誌的으로 분석하고 간행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정리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形態書誌學的 측면에서 이 책의 간행시기는 版式과 書體로 보아 高麗 肅宗때 만들어진 海印寺 寺刊板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 紙質과 表紙의 文様 역시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치는 시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口訣 轉寫의 과정에서 볼 때 이 책은 80華嚴經의 일부이며 卷14는 내용상 淨行品과 賢首品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淨行品은 별도의 경전으로 자주 간행되고 읽혀졌으므로 口訣을 경전 전체에 달았다기보다는 이 책이 선택적으로 연구되고 읽혀졌다고 볼 수가 있다.

셋째, 이 책에 口訣이 쓰여진 시기는, 전체의 筆寫 過程에서 약 47곳 이상에서 誤記나 錯視現象을 보이고 있음으로 이 책이 印出된 시기보다는 약간 빠른 시기의 어떤 底本을 보고 轉寫하였다고 추정이 된다.

넷째, 전체 사용된 口訣字의 수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56자를 전후하고 있으며 같은 글자도 'ㅅ/の'이나 'ㆍ/ㅡ'와 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교, ㄴ, ㅁ, 乂, 卬, 攴'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형태들은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문장의 표기법에서는 다른 口訣資料와 마찬가지로 逆讀点을 사용하였으나 같은 형태의 중복되는 문장은 처음의 행에 구결을 표시하고 이후는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舊譯仁王經과 瑜伽師地論에 이어 발견된 釋讀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을 書誌的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공개 발표된 이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字形 分析이나 문장 내에서의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가 거듭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 분야 연구의 기초 작업이므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자료에 대한 서지적인 분석이 먼저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에 기입된 구결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서 기입된 구결의 선후 문제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고 서지적으로도 체계가 세워져서 알려지지 않은 高麗時代의 言語生活 연구에 一助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參 考 文 獻

金斗燦.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8(1989), pp.64-88.

金文雄.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硏究. 서울 : 螢雪出版社, 1986.

金相大. 口訣文의 硏究. 서울 : 한신문화사, 1993.

金永萬.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I)." 國語學新硏究III; 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서울 : 塔出版社, 1986.

金完鎭. "特異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硏究." 東洋學 15輯(1985.10), pp.1-17.

南豊鉉. "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 硏究; 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69(1990.6), pp.75-101.

———.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III; 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서울: 塔出版社, 1986.

———.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輯(1985.10), pp.19-40.

_____. "國語處格助詞의 發達; 舊譯仁王經의 口訣을 중심으로." 國語國文學論叢, pp.69-93.

_____.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1993.9), pp.115-170.

南豊鉉·沈在箕.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第6輯(1976), pp.1-68.

朴昌遠. "舊譯仁王經(上) 口訣字 攷." 京畿語文學 第8輯(1990.8), pp.181-210.

———. "舊譯仁王經(上) 口訣硏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 京畿大學校 大學院, 1986.

백두현.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攴와 攵; 그 讀音과 문법기능." 어문논총 27호(1993), pp.125-153.

沈在箕.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生成背景 및 釋讀機能을 中心으로-." 韓國學報 (1), pp.2-22.

———.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1975), pp.19-35.
安秉禧.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1976), pp.143-162.
———. "中世語의 口訣記寫 資料에 대하여." 奎章閣 1(1976), pp.51-65.
여찬영. "조선조 구결문과 언해문의 성격 연구." 國文學硏究 第11輯(1988.6), pp.27-65.
柳鐸一.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金鍾雨博士華甲紀念論叢. 1977.
李東林. "舊譯仁王經의 口訣解讀을 위하여." 東國大學校 論文集 第21輯 (1982). pp.136-186.
李丞宰.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1990), pp.117-147.
———.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安秉禧先生回甲紀念論叢. 서울 : 文學과 知性社, 1993, pp.56-76.
_____.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3(1993), pp.325-379.
崔範勳. "口訣 硏究." 국어국문학(1972), pp.55-57.